

저수지 상류·농업진흥지역 공장 설립 제한 풀어

정부 '제1차 규제개혁 조정회의'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산업단지 용지 5년 처분 금지 규정 완화 대부분 혜택 수도권 집중 지방 산업 위축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이 논의됐다. 산업부도 관련 세부 대책을 준비했다. 하지만 대부분 혜택이 수도권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돼 지방 산업계는 위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산단에도 서비스업 가능=산단 입주하는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기타 제조업 연관 업종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제조업과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 융복합 유통업종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고객지원 서비스를 위한 콜센터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부분 업체, 다단계판매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통신판매업은 제외된다.

공장설립 과정도 쉽고 빨라진다. 현재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한 인허가 대행 및 상담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 센터별로 전문인력이 한 명에 불과해 대기 기간이 2~3개월씩이나 됐다.

이에 산업부는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담 문의가 많은 수도권에 대상으로 민원상담 콜센터(1688-7277)를 시범운영하고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블로그(blog.naver.com/kicox12)도 운영한다.

그러나 개선대책의 효력은 물류와 유통, 고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도권에 과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 가뜰스나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등 지방산업계는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새로운 고민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저수지 상류에 공장 허용=저수지 상류에도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세울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 개선 방안 등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선한 규제 개혁 과제를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농어촌 우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유탄거리(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켜 거리) 500m 내에는 공장 설립이 금지됐다.

앞으로 저수지 상류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도 저수지로 오염물질을 흘러 보내지 않는 공장은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나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공장은 원천적으로

공장 설립이 안 된다.

이 규제 완화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 전국 농업지역 면적은 총 689ha다. 또 비도시 지역 중 저수지 상류에서 2km 바깥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만 지을 수 있었으나 저수지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내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면적 제한 기준을 농업진흥지역 안팎을 모두 포함하는 총부지 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부지 면적으로 바꾼다.

중전에는 설립할 시설이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내 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지 않아도 전체 공장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공장 설립이 제한됐다.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을 주원료로 쓸 수 없었으나 앞으로 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은 다른 곳에서 생산했다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산지 전용 허가 시 기존 허가지와 연계한 개발이 불가능했던 규정을 없애고 복구계획서와 복구설계서 중 하나만 선택해 낼 수 있도록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보전 산지 편입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특별시·광역시에도 산업단지 조성 시 편입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4ha에서 8ha로 확대한다.

◇산업용지 처분 규제 완화=지금은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 설립 후 5년간 용지를 처분할 수 없다.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년 처분제한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적 의도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지분거래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고 추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의 경우 의견 수렴과 함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규제, 풀고 또 풀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경기도 안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규제에 대한 현장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즉석에서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광주시 2020년까지 연매출 2조원 에너지 밸리 조성

에너지산업 허브도시 건설 기본계획...관련 기업 250개 유치

광주시가 오는 2020년까지 연매출 2조원대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밸리 조성 사업에 나선다.

광주시는 30일 한국전력의 에너지 밸리 조성 사업에 참여해 차세대 에너지산업 허브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1단계로 2020년까지 에너지

관련 기업 250개 유치, 5000명 신규 고용 창출, 연매출 2조원 달성, 1등 기술 20건 확보 등을 목표로 정했다. 또 분산형 에너지 관리, 에너지 저장시스템, 에너지 융복합 소재부품분야 등 3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 에너지밸리 지원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관련 사업 추진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동안의 기술개발 사업과 기업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 밖에도 한전과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조성, 사회복지시설 히트펌프 교체, 사회안전망 스마트 시티 구축, 전력 에너지 연구개발사업 등도 공동 추진한다.

시는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비롯한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 한국전기연구원 분원 설립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정환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한국전력의 혁신도시 이전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에너지 밸리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은 물론 한전 사업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내일 광주시청 문화광장 시민콘서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에 감사하는 시민콘서트가 1일 오후 7시 광주시청 문화광장(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이날 콘서트는 광주 U대회 성공 개최를 축하하고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 등 현장에서 수고한 시민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우리 광주 자랑스럽습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콘서트에는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 시민 등 3000여명이 함께

한다. 콘서트는 '추억과 감동'이라는 주제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 활동상 등을 담은 U대회 스토리를 상영하고 트로트, 포크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윤정현 광주시장은 이날 서포터즈 395명과 자원봉사자 135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화합과 열정'이라는 주제로 인기가수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다.

남부대·염주실내수영장 시민 품으로

2015광주하계U대회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남부대국제수영장과 염주실내수영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광주시는 30일 "남부대수영장은 다음달 5일부터, 염주수영장은 다음달 20일부터 문을 연다"고 밝혔다.

남부대수영장은 U대회 성공적 개최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한 달간 무료 개장한다. 광주시는 남부대 측과 수영장 활용기본계획 및 위 수탁 협약을 최근 마무리했다.

다만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대 한수영연맹 상비군과 꿈나무 선수들의 전지훈련이 예정돼 있어 일부 개장이 제한될 예정이다.

염주수영장은 U대회 진행을 위해 제거한 수심안전판 재설치 작업 등으로 개장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남부대 국제수영장은 연면적 1만9398㎡ 규모로 662억원을 들여 지난 3월에 준공됐다. 50m 18레인, 다이빙풀 등을 갖췄다. /박진표기자 lucky@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짝 눈,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비절개 눈매교정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 안과 / 소아안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시열병원 보건의료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